

◆ 政府 施策 ◆

重電機器 기술개발 支援策강구 - 商工部 産·學·研 공동사업 중심 -

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지원책의 일환으로 韓電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중전기기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등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韓電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해 산·학·연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전기기 기술개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고시, 우선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수출산업설비 자금등을 활용, 양산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기사업협회등 설계관련단체 및 전기공사협회등 시공관련단체에 대해 개발제품 사용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韓電연구개발지원자금은 지난해 총 110개 과제에 대해 지원됐는데 ‘난연무독성 전선’, ‘통신기 기회로 보호장치’, ‘시간제어회로 내장형 콘센트’등 3개 과제는 이미 국내특허를 획득하거나 특허획득 절차를 밟고있는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고효율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Dimming형 전자식안정기’, ‘지중배전용 SF₆가스부 하 개폐기부품’등 3개 과제도 개발을 완료,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개발완료과제 개요

과 제 명	개 발 과 제 개 요	지적소유권
1. Oil dash pot type의 Trip 장치를 이용한 회로보호 장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전류발생시 Fuse가 차단되는 것을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부하 차단설비 (Auto-Breaker)개발 -사용 : 중전기기, 컴퓨터, 사출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준비중 ○ 생산중('91말)
2. 지중배전용 SF ₆ 가스부하 개폐기 부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KV용 지중배전선용 개폐기 접점, 붓싱등 개발 (97%국산) -사용 : 연간 1,800대의 차단기 제작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중('93. 2)
3. 시간제어회로 내장형 콘센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콘센트의 전원이 자동차단 -사용 : 숙박업소, 가전기기용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신안특허 취득 ○ 생산중('93. 5)
4. 고효율 Metal Halide Lamp용 안정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권선용 안정기를 전기소비가 적은 전자식안정기 개발(개당 175W→158W, 10%절감) -사용 : 가로등용, 공장조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중('92. 9)
5. Dimming형 전자식 안정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전자식안정기는 熱이 없고 효율이 높아(60%→80%로) 전기소비가 약 30% 절감됨. -사용 : 가정용, 사무실용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부터 생산예정
6. 난연 무독성 전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건물에 화재발생시 케이블 피복 연소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발생이 없는 케이블, 전선개발 -사용 : 건물배선용, 발전소용, 선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중 ○ 생산중('93. 2) -삼성중공업에 납품('93. 4)

OEM方式 수입물품 原產地표시 審査강화 —表示 곤란물품 基準마련—

관세청은 해외 현지공장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반입되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수입물품 및 위탁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심사를 엄격히 실시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이들 물품에 대해 내년부터는 前面라벨이 있는 위치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통관을 전면 보류하거나 반송시킴으로써 원산지 표시 미부착 OEM물품의 수입을 전면 봉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외에서 제조·가공한후 국내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기해 소비자에게 수입 OEM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토록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함께 의류제조용 직물등 원산지 표시가 곤란하거나 적절한 표시 방법을 판정하기 어려운 일부 수입물품(의류직물,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절연전선, 고무사와 고무끈, 목탄, 성냥, 미완성기구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마련, 각 세관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관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케하고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 적절한 표시방법을 판정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 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主力市場점유율확대에 總力 —상공부, ‘品質韓國’ 캠페인展開등 政策지원—

상공자원부는 美國·日本·EC등 수출주력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이 없이는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 주력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물가·임금·금리등의 안정을 적극 꾀하고 수출금액의 1-4%에 달하는 수출부대비용의 절감을 위해 수출입절차 간소화와 사회간접시설확충·무

역정보화 촉진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력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해 고유상표 및 디자인 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공동으로 해외판매금융회사를 설립, 판매금융회사와 해외유통법인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스톡세일과 리스 및 렌탈방식에 의한 수출확대도 적극 꾀할 방침이다.

또한 주력시장 마케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臺灣의 '特攻隊', 日本의 '政經義塾'과 같은 지역별 마케팅전문요원 양성기관을 수도권에 설립키로 하고 재원마련과 입지확보, 연수프로그램등 마스터플랜을 3·4분기중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엔高로 日本이 선진국 시장에서 저부가가치제품에서 탈피, 고부가가치부문으로 특화하고 있어 일본업체가 남긴 공백의 선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업종별단체 중심으로 선진국해당단체와의 기술도입과 자본협력 및 공동기술개발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토록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주요선진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현황과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출유망품목의 고유상표 및 디자인 개발을 촉진키 위해 공업기반기술자금 및 공업발전기금등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및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며 상표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선진국 유명상표의 인수 및 디자인現地化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貿公의 내년도 전시회참가 지원예산도 올해의 26억원보다 배 가까운 48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시 貿公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토록할 계획이다.

주력시장 정보의 신속화 및 체계적인 국내전과체제 구축에도 주력, 무역협회 및 무공현지 주재원의 시장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해 분기단위로 당해지역의 경제·무역동향, 소비수요패턴 변화 및 정부정책의 변화등을 종합, 본부에 보고토록하고 반기단위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수출기업에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진청을 통해 수출품에 대한 품질향상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수출품의 품질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품질열위요인 및 불량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각 기술지도기관을 연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자율품질관리기준을 제정, 업계에 보급키로 했다.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동향관리도 信號燈체제로 관리, 貿公을 통해 ▲수출물량은 늘고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품은 초록불 ▲수출물량과 시장점유율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상품

중 후발개도국의 추격보다는 우리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노랑불 ▲수출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품중 후발개도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품목은 빨강불로 각각 분류,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첨단기술상품과 우수품질 생산국으로의 韓國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품질한국캠페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우선 오는 9월부터 10월경 美國주요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외홍보사업을 재점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호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對日輸出에 超高速통관제 — 財務部 對日貿易역조개선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최근 악화세를 보이고 있는 對日무역역조개선을 위해 소재·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對日수출에 대해 超高速통관제를 마련하는등 금융 및 세제, 관세 및 통관, 투자유치확대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對日貿易역조의 주요인중 하나인 부품 및 소재의 일본産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산제품의 품질향상활동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부품 및 소재에 대해서는 국산화계획(商工部)에 따른 財政자금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소재·부품산업시설자금(輸産貸) 및 中小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등 한국은행이 再割지원을 실시하는 金融자금이 있다.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업체가 이같은 금융지원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대해 불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延支給 수입기간을 대일수출용 원자재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일본기업의 국내 제조업 투자진출이 무역역조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투자유치를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주중수출품중 일본이 高關稅를 운용중인 품목에 대해 쌍무협상의 방식으로 세율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 일본의 관세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美國이나 開途國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 관세법개정에 따라 제조전 수출신고 및 입항전 수입신고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지만 對日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보다 단축하는 超高速통관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다변화품목에 대한 통관절차중 차별적 제도가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逆수출용 부품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시험기관公認制度 10월도입 -工振廳 계량·측정法마련, 실시키로-

공업진흥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실시한다. 공진청은 정부·단체·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검사기관간 상호인증제도를 실시,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험검사기관 공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제도는 국가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기관(공진청)이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적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EC국가와 미국·캐나다등 30여국에서 실시중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국내에서 적은 비용으로 각종 인증을 받아 외국의 재검사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진청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1200개에 달하는 민·관시험검사소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진청은 국내에서 지정받은 공인기관과 외국기관과의 상호인증을 위해 ILAC(국제시험검사기관협의체)회의를 비롯한 분야별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 국내외 기관간 상호인정에 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다.

특히 EC지역과는 올해안으로 시험검사 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교환과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인정협정도 체결키로 하고 관련작업을 진행중이다.

공진청은 국가간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과는 별도로 단위시험검사기관간 상호협정체결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등 6개 검사소도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시험기관을 홍보하고 단위검사기관간 상호인정을 위해 브뤼셀에 공동으로 주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외국규격획득실적을 살펴보면 3039개 업체가 5936건에 걸쳐 미국의 UL을 획득,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캐나다의 CSA 1159개업체(3278건), 미국의 FCC 514개업체(1517건), IWS(국제양모사무국)는 411개업체(489건), 독일의 VDE는 188개업체(284건) 순으로 집계됐다.

品質취약 KS業體 특별工場檢査 —工振廳 이달중 12개品目 1450個社대상—

공진청은 과당경쟁으로 품질상의 문제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되는 KS허가 제품인 스티로폴과 가정용 소형변압기등 12개 품목, 1450개사에 대한 특별공장검사를 8월중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KS허가업체에 대한 공장검사가 사실상 폐지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S허가를 얻은 공장에 대한 공무원의 방문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최근 일부 KS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별공장검사는 공진청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 또는 품목별 KS협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검사대상품목은 가정용 소형변압기, 레미콘, 아스콘, 청동밸브, 스티로폴,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시멘트벽돌,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나사식 가단주철재관 이음쇠,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 등이다.

공진청은 앞으로도 KS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 또는 간섭은 가급적 최소화, 업계의 자율은 최대한 보장하되 품질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工産品品質管理法개정추진 —政府, 업계품질경영촉진케—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품질경영운동이 국내 모든기업에게 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실천되도록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진청이 품질경영의 목표와 실천방안등에 관한 구체적인 품질경영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기업이 이를 참고로 품질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명칭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제표준화된 공산품제조공급자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인증하는 인증기관과 인증과 관련된 지도·훈련등을 담당할 연수기관을 지정, 민간자율적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인증을 실시하도록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증대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도록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 이익과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품질검사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재산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만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대신 벌칙은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품질경영체제를 확립,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분임조 및 품질명장을 선정, 포상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外資購買방식 크게 改善 —조달청 規格·價格분리 入札制 확대—

조달청은 외자구매품목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規格·價格 分離入札대상을 품목당 4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추는등 외자구매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산품이 없어 외국에서 구매하는 외자구매물품의 90%이상이 性能위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규격·가격 분리입찰방식이

란 입찰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 동시 접수받아 우선 규격입찰서를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 입찰서만을 별도 지정일시에 입찰자 참여하에 개찰하는 사전 品質 및 性能보장을 위한 입찰방식이다.

調達廳은 규격·가격 분리입찰제도 확대실시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外資구매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외자구매시 적용키로 했다.

자체내규인 외자구매구매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이 입찰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턴키조건계약 ▲다수 제작자가 생산, 설치하는 계약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품질 및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는 경우 ▲제품 또는 계약성질상 규격·가격 분리입찰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조달청은 또 품목당 배정예산이 40만달러에서 10만달러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10만달러 미만이라도 규격·가격 분리입찰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분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지난해 이 방식에 의해 KFX, 차관등 外資로 40만달러이상 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67건 (KFX 29건, 차관 38건), 6억2323만6천달러로 총계약건수(5259건)의 1.27%에 불과했지만 금액 면에서는 총계약금액(9억3226만4천달러)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건당 금액별 구매실적을 보면 △100만달러 이상이 79.5%로 가장 많고 △50만-100만달러 3.2% △40만-50만달러 1.5%로 高額구매비중이 높지만 20만달러이하도 11.1%인 1억321만9천달러(4975건)에 달해 10만달러로 하향조정한테 따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4개 국제共同研究과제 선정 - 68個課題 企業 資金·人力부담참여 -

科學技術處는 알루미늄분말플레이크제조 기술(기계연, 창성-러시아)을 비롯한 26개 신규과제와 48개 계속사업을 포함해 모두 74개의 기술개발과제를 금년도 國際共同研究課題로 선정하고 금년중 4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제공동연구과제란 러시아·중국·미국등 기술선진국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85년이후 지금까지 483건의 과제에 260억원이 지원됐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금년에 정부의 지원하에 이뤄질 74개 국제공동연구 과제중 연구성과를 활용하거나 상품화를 겨냥해 기업들이 연구자금·인력 및 기자재를 공동부담하는 과제가 68개에 달하는등 업계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금년에 새로 추진되는 기술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과제수를 국별로 보면 러시아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일본 및 미국이 각각 4건씩이다. 또 독일과의 공동연구가 3건이고 영국은 2건,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 및 이탈리아가 1건씩이다.

또 연구개발대상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기계기술, 신소재, 정보 및 전자, 항공우주, 정밀화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국제공동연구에 금년 새로 참여하는 기업은 한국중공업(고온재료), 유한화학공업(유전학적 육종), 명진크리넥스(레이저의료기), 대우중공업(항공기설계), 금성산전(대기오염연구장비), 현대정공(인공위성용 엔진개발)등 24개사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電氣安全管理규제완화—

상공자원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가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간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보유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채용과 함께 전기안전관리 보조원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했던 것을 2천킬로와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천킬로와트를 넘는 전체 사업장(3107개)의 절반정도인 1500여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선임의무가 면제, 업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게 됐다.

상공부는 또 정기검사대상 설비의 경우 현재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은 2년마다 발전기는 1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하고 있는 것을 모두 2년주기로 일원화, 매년 검사를 받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또한 폭발성이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등 특수장소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라도 전기사

업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로 규정, 위험물취급자 채용과는 별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업체의 정기보고사항인 자가용발전설비의 운전실적보고제도를 폐지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3-60호(1993. 8. 2)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조직을 다양화하고 협동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조합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합, 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사무소 또는 해외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설립에 관한 중앙회장의 추천근거를 모범에 규정하여 조합설립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하였음.

다. 조합이 단체표준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단체표준을 제정토록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소규모기업자의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하고 사업재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소기업자의 경영적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음.

마.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지방조합, 사업조합에 대해서 중앙회가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하여 조합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음.

- 바. 중소기업공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제도, 선관주의 의무규정의 기준 및 책임한계의 규정, 공제금 대출의 대손을 보전하기 위한 대손 보전제도등을 마련하였음.
- 사. 중앙회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사업추가와 중앙회의 업무증대, 협동조합수의 증가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원을 증원(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1인)하여 집행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음.
- 아. 중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회원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배제하였음.

工業배치 및 工場설립에 관한 法律개정안 立法예고 - 공장면적 200m² 미만 工場登錄 의무면제 -

앞으로는 종업원수가 16명을 넘더라도 공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8월 3일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장등록의무대상을 공장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수가 16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수에 의한 기준자체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관련기업에 불편을 주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종업원수 기준을 삭제기로 했다.

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설립후 별도로 16개 토지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 설립신고를 받고 확인서를 내주는 것으로 관련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토록해 공장설립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이용관리법등 5개 주요 토지관련법상의 용도 및 지역별로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도 통합고시, 업체가 공장입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과밀억제와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등 수도권 3개 권역의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했으며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는 총량규제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업단지입주기업의 불편해소방안도 마련, 공단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장등록증을 당해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공단관리기관도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또 공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공장건설전에 분양을 받은 토지를 불가피하게 처분코자할 경우 공단관리기관에 양도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관리기관이 예산상의 이유로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등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해 해당업체의 경영난이 경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에 일정규모이상의 한국기업전용공단을 개발, 분양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토록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부투자기관과 개별기업이 주체가 되어 외국에 다수의 국내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에 한국기업전용공단의 개발, 분양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개발과 과당경쟁으로 관련기업에 피해를 주는 한편 국익을 저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전지의 사전검사상품지정 및 동 검사기준제정(안) 입법예고

공업진흥청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품질검사) 제1항 및 제7조(품질검사의 기준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지를 사전검사상품으로 지정하고, 건전지의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기준등에 관련된 입안절차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 공고 제1993-952호('93. 8. 7)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취지 : 사용하고 버린 건전지에 함유하고 있는 수은(Hg) 등 중금속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고전 검사(사전검사) 상품으로 지정함.

2. 주요내용

○ 검사적용대상 : 망간(1차) 및 알카리(1차)건전지

○ 검사기준내용

- 수은함량 : 1ppm 이하

- 전지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단자간의 전압

· 망간건전지 : 1.50V+0.22V, -0V

· 알카리건전지 : $1.50V + 0.15V, -0.05V$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장(참조 : 기준조정과장, 전화 503-793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품목(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과 검사기준에 반영되도록 희망하는 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國內外 情報 ◆

次世代 斷熱材등 연구 — 日本電機工業會 10社와 공동개발 추진 —

일본전기공업회는 전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차세대 단열재등을 연구하는 위원회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업회가 설치하는 위원회등은 '고효율 차세대 단열재 및 발효제 개발연구실'과 '고효율 기기개발 특별위원회'로 연구실은 도시바·마쓰시다冷機등 10社가 참여, 냉장고를 비롯한 가정용 전기기기용 차세대 단열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전기공업회는 또 도시바·히타치 등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메이커 10社가 초가을부터 특정프레온을 사용하지 않은 지구환경에 무해한 냉장고를 잇따라 판매에 나서는 것과 관련, 종래의 냉장고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동시 지구환경보호의식의 고양을 위해 '신형 냉장고 통일마크'와 '96 특정프레온규제 대응 냉장고 및 냉동고'등 로고와 일러스트를 제정했다. 이들 로고등은 제품 본체의 도어 앞면에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된다.